

연구논문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윤 광 재*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 III.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분석
- IV. 소속기관차원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분석
- V. 종합분석
- VI. 결론

〈요약〉

최근, 체육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의 역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각 선진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체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부처를 설치하여 관련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육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두어 체육행정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측면하에서 일부 체육행정조직의 사업 중복성 및 이로 인한 재정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육예산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도 전체예산에서 체육관련 재정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소속기관차원에서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재정력이 1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99%정도로 재원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체육행정조직의 구조적 문제 및 재정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체육행정조직, 체육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재정력]

I. 서론

세계 각 국가에 있어 체육에 대한 개념규정이 상이할 수 있지만 이현정(2004: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assas90@hanmail.net)

22)은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희덕(2013: 9, 14)은 체육에 있어 신체 및 신체운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체육의 특성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격형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체육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가자나 응원자에게 페어플레이, 규칙준수, 평등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의식과 친선정신을 고양시켜준다(Johnson & Frey, 1985: 1).

이 밖에도 체육은 국제스포츠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포츠는 하나의 산업이자 비즈니스로써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이미 축구와 같은 일부 스포츠는 글로벌 영역을 확보해나가고 있다(Doll & Söderman, 2011). 따라서 체육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신체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의 전달자, 국위선양의 지표 및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써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특히, 중앙차원에 관련 부처를 두어 국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국가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방국가인 영국은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프랑스는 체육·청소년·평생교육·협회부(Minist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일본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체육행정의 정점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치해 있고 주요 활동으로 문화, 미디어 및 관광진흥 등을 포함해 국가의 체육발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화된 산하기관으로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산하기관은 국가예산 및 자체 재원마련을 통해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련 중앙부처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체육관련 기능 및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차원의 자체예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의 체

육발전 및 산하기관이 전문화된 체육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체육환경을 둘러싼 시대적 중요성하에서 우리나라 체육행정조직의 기능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체육행정조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차원하에서 재원조달 경로를 검토하여 각 기관의 재정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육행정조직의 재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1. 이론적 논의

체육은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매개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여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을 운동, 체조, 체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반면에 스포츠라는 용어는 실제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전환이나 즐거움을 위한 레크레이션적 모든 신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라는 용어는 영국으로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갔으며 19세기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조현영·정남주, 2005: 14).

Forster & Pope(2004: 17)는 오늘날 체육은 문화적 의미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또한, 경제적 요소와 관계되어 있다. 즉, 해양스포츠가 젊은 이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는 영화와 같은 외적인 형식을 통해 경제적 요소와 결부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제, 문화상품으로서의 스포츠콘텐츠는 스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규칙을 수용하는 정정당당한 경쟁가치의 정착과 단조로운 현대인의 삶에 활력과 흥미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성길, 2012: 21).

그러나 일반행정이든 체육행정이든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전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 특성에 대해 Straussman(1990: 2)은 행정은 경영에 비해 법적인 적용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규정

(2000: 13) 또한 법적인 적용, 공공성 측면, 공익성 추구, 정치성 내포, 합리성·관리성 중시 등을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윤광재·황성수, 2011: 30).

현실적으로 체육행정에 대한 개념은 체육에 관한 행정인가 아니면 체육을 위한 행정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체육행정을 체육진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조직적 단체활동을 조성하는 것 혹은 체육진흥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2인 이상의 합리적 협동행위로 정의한다. 그리고 체육행정을 구체적으로 행정과정으로 인식하여 기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보고, 예산 등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또한, 체육행정을 수단적 봉사활동으로 보아 체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범제, 1999: 9-10).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체육행정을 체육진흥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체육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행정청의 업무로서 지도적, 관리적 기능을 포함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상호, 2010: 18).

이러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체육행정조직이 필수인데, 조직이론에 있어 조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조직은 과정과 구조라는 양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조직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조직을 의미한다(김택·유종해, 2011: 13). 또한,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의 의식적으로 협력화된 활동과 작업에 대한 체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Denhardt, 2011: 14). Jones(2010: 2)에 의하면 구성원이 원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something)인가를 얻기 위해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는 도구(tool)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설치된 체육행정조직이외에 정부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of the government)¹⁾에 따라 설치되어 업무특성이 강하고 공공사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경우에 따라 시장과 정책분야를 규제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Verhoest et al., 2012: 3) 하는 조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정부부처와 구조적으로 별개로 운영되며 업무수행에 있어 덜 수직적이고

1) 팔길이 원칙은 문화행정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한다는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하지않고 실질적인 권한을 다른 조직에 양도(devolve)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홍익 외, 2008: 28).

덜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재정과 인력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차원이외의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이라는 공공정책분야에 있어 일정한 운영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9세기에 많은 체육조직이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으로 설치되었고 그들은 체육활동을 규율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국내경기를 개최하며 다른 국가와 선의의 경쟁을 위해 국가팀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Houlihan & White, 2002: 164).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일부 선진국가는 체육과 레저분야를 공공정책의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발전 및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이념과 체육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연관되기 때문이다(Bloyce & Smith, 2010: 29).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초에 대한체육회와 같은 일부 자발적 조직이 설치되었고 정부수립 이후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가체육관련 국·과가 조직되었다. 이 밖에 소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설치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육행정조직을 둘러싼 연구경향은 다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내의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행태 등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체육행정조직의 기능 및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체육행정조직의 재정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식(1998)은 자원의존이론을 기초로 정부, 민간영리조직, 민간비영리조직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직생존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김정하(2000)는 체육행정조직의 권력행태를 도구형, 폐쇄형, 전체형, 전문형으로 구분하여 조직구조를 포함한 조직문화 및 조직유효성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폐쇄형과 전체형 권력행태가 조직구조 및 문화가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주훈 외(2001)는 체육행정조직의 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작지만 강한 중앙체육기구가 필요, 지방자치단체 체육행정 강화, 생활체육의 효율적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채재성(2003)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운동을 위한 조직구조 및 기능연구에 있어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독립)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거나 양 단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되 국민생활체육회의 역할과 기능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창모(2007)는 한국체육행정 조직체계의 모형개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관련 부의 체육조직확대, 서울시 스포츠마케팅 전담기구의 신설, 교육관련 부의 체육조직 확대, 서울시 교육청 체육조직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강경용(2007)은 지방체육행정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시 말해 생활체육의 주체인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의 육성단체인 체육회의 현황을 통해 전인체육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섭(2010)은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에 대한 연

〈표 1〉 선행연구 검토분석

구분	주요 내용	재정내용
이용식 (1998)	자원의존이론을 기초로 정부, 민간영리조직, 민간비영리조직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직생존의 가능성 제고함	연계성 없음
김정하 (2000)	체육행정조직의 권력행태를 도구형, 폐쇄형, 전체형, 전문형으로 구분하여 조직구조를 포함한 조직문화 및 조직유효성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함	연계성 없음
김주훈 외(2001)	체육행정조직의 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체육기구의 존재가 필요함	연계성 없음
채재성 (2003)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운동을 위한 조직구조 및 기능연구에 있어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독립)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함	연계성 없음
구창모 (2007)	한국체육행정 조직체계의 모형개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관련 부의 체육조직확대 등을 제시함	연계성 없음
강경용 (2007)	생활체육의 주체인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의 육성단체인 체육회의 현황을 통해 전인체육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통해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함	연계성 없음
김용섭 (2010)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포츠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함	연계성 없음

구를 통해 스포츠단체를 통합한다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발전해야 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화된다면 정부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육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분석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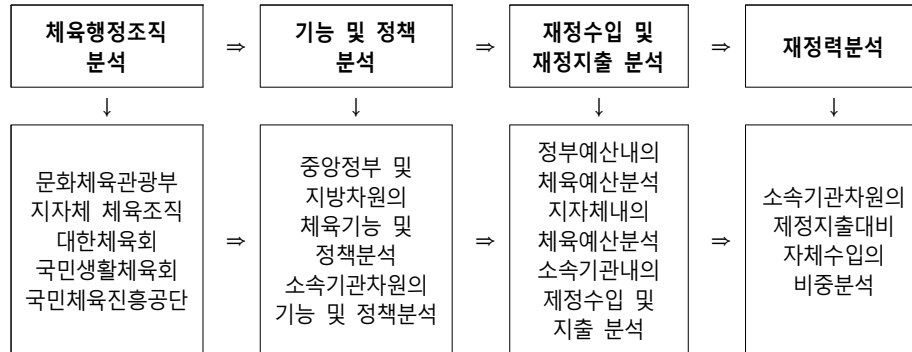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체육행정조직과 재정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위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체육행정조직의 구조적 측면 또는 운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가 강화되고 평가의 일환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재정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작업이 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재정력(financial capacity)이란 한 단체의 재정역량 또는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원조달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김지옥, 2012: 3). 또한, 재정의 규모, 수요에 대한 재정잠재력, 조직체의 재정사무 수행능력 또는 조세부담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상범, 2013: 2).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차용하여 체육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재정력은 재원조달능력으로 전제하고 재정지출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국, 체육행정조직은 체육발전 및 진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이를 위해 분업과 조정을 위한 공식적 구조와 과정이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규모와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최항순, 2013: 37-38). 따라서 체육행정조직에는 일정한 기능이 주어지고 목적달성을 위해 체육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체육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수입을 조달하고 재정지출을 하게 된다.²⁾

2) 체육행정조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체육백서 2011년, 2012년, 2013년에 기초해 분석한다. 다만, 시차적 차이로 인해 분석대상은 2010년, 2011년, 2012년이다.

〈그림 1〉 분석틀의 설계



III.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분석

1. 중앙과 지방체육행정조직의 기능과 정책분석

OECD는 국가기능을 열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행정(general public)을 비롯하여 국방(defence), 공공질서·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경제(economic affairs), 환경(environment), 주택 및 편의시설(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보건(health), 여가·문화·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교육(education),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체육은 여가·문화·종교기능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에서 체육기능은 문화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체육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 관광, 문화, 체육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체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체육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인 전문체육,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인 생활체육,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하는 학교체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체육행정조직은 이와 같은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문민정부 전후를 구분하여 큰 변화가 진

행되었다. 다시 말해,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 동안의 체육정책이 엘리트스포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벗어나 발전이 미흡한 생활체육을 중점·진흥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다시 말해, 제3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진 체육입국의 국가시책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엘리트체육을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동하고 국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5). 그러나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단기적이거나 임기응변식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강경용, 2007: 496).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문교부 체육과, 1956년 체육국을 거쳐 1982년 체육부가 단독으로 설치되었다. 이후에 1990년 체육청소년부, 1993년 문화체육부, 1998년 문화관광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구창모, 2007: 88).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조적으로 체육관련 국 하나만을 설치하고 있으며 체육진흥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국가대표선수 육성·지원 등을 통한 전문체육 진흥, 생활체육·레저스포츠·스포츠산업 진흥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국제체육교류 진흥,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장애인의 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국산하의 5개 과로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가 존재하고 있다.³⁾ 체육관련 부처의 조직확대에 대한 찬성의견도 존재(구창모, 2007: 90)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하에서 조직확대보다는 체육관련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생활체육 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체육지도자의 양성,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스포츠마케팅활성화 및 브랜드육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운용 및 체육시설업 관리지원, 프로스포츠 진흥 및 활성화, 주취단체지원금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체육과는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 장애인체육과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국가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 정부부처가 체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용식, 1999: 607)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체육은 교육관련 부처와의 연계하에 수행되고 있다. 즉, 교육부는 교육정책실내에 인재체육예술교육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한 기능수행과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체육의 주요 정책으로는 지자체에 적합한 체육정책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체육시설관리나 생활체육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 등의 국단위에서 체육진흥과, 체육청소년과, 스포츠산업과의 과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하부단위로는 체육정책,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스포츠산업 등의 하부 팀 또는 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주민자치팀, 생활환경정비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육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18).⁴⁾ 이 밖에 양적으로 늘어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체육시설공단이나 관리사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자원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며 재원과 정책을 뒷받침만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용식, 1998: 607).

2. 중앙과 지방체육행정조직의 재정력분석

OECD 국가에서 여가·문화·종교기능은 국민의 인간적 삶의 질을 제고하며 복지국가의 이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일수록 여가·문화·종교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이에 대한 중앙(연방)정부의 GDP 대비 지출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만을 기준으로

4)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의 경우,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에 체육진흥과로 존재하고 있으며 체육정책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장애인체육팀, 생활체육팀, 생활체육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중구의 경우, 교육체육과 단위에 교육기획팀, 명문학교육성팀, 평생교육팀, 생활체육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경우 프랑스는 1.7%의 지출비중, 영국은 1.3%의 지출비중, 우리나라는 1.4%의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어 프랑스에 비해 낮고 영국에 비해 약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전체 지출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문화·종교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체육인프라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예산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전체 평균은 1.7%로 이와 같은 수치는 1%대 초반에 위치해 있는 주택 편의시설과 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환경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OECD, 2013: 203).

〈표 2〉 일반정부 GDP대비 기능지출비중

(단위: %)

기능	일반 행정	국방	공공질서 ·안전	경제	환경	주택 및 편의시설	보건	여가·문 화·종교	교육	사회 보장
우리나라	13.6	16.0	5.1	40.0	1.1	1.8	11.3	1.4	6.6	3.1
OECD	24.5	5.9	4.6	14.2	0.7	1.2	9.2	1.7	10.6	27.5

자료: OECD, 2013: 203.

중앙정부 수준에서 문화체육관광관련 예산이 2002년 정부예산대비 1%를 초과하여 2004년 1.3%까지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2006년 0.66%까지 감소하고 최근에는 0.9%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체육예산은 당시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전체 예산환경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규모의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 체육관련 예산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국제대회의 유치나 이를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

2012년 우리나라의 정부예산내에서 체육부문은 0.06%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합산하는 경우 총 규모는 8,860억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체육부문 예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체적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표 3〉 정부예산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예산	문화관련 부처		체육부문		체육진흥기금 금액
		예산	비중(%)	예산	비중(%)	
2010	205,331,200	1,816,600	0.88	152,900	0.07	529,500
2011	209,930,300	1,960,300	0.93	155,900	0.07	656,800
2012	241,055,900	2,093,300	0.87	151,600	0.06	734,400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련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국고보조율(35-50%)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체육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80).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예산에서 체육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44%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1년과 유사하지만 2010년에 비해서는 0.36% 낮은 수치이다. 2010년의 경우, 울산시가 2.87%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0.7%로 가장 낮고 2011년에도 울산시가 2.15%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0.72%로 가장 낮다. 2012년의 경우에는 대구시가 2.60%의 비중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0.78%의 비중으로 여전히 가장 낮다.

〈표 4〉 지방자치단체(광역시+기초) 체육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2010	203,081/0.70%	203,635/1.67%	107,347/1.87%	91,051/1.33%	52,789/1.23%
2011	204,382/0.72%	174,949/1.56%	141,799/2.50%	99,528/1.46%	41,967/0.99%
2012	240,146/0.78%	136,183/1.41%	167,073/2.60%	115,357/1.04%	95,789/2.02%
연도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2010	52,478/2.35%	62,020/2.87%	519,140/2.02%	209,877/2.19%	115,902/1.56%
2011	40,430/1.49%	42,982/2.15%	380,780/1.46%	169,707/1.90%	108,217/1.45%
2012	76,374/2.40%	76,221/1.87%	449,876/1.26%	201,930/1.97%	179,258/2.15%
연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10	131,405/1.33%	138,137/1.37%	173,701/1.28%	199,388/1.38%	316,895/2.19%
2011	120,647/1.34%	116,687/1.18%	153,075/1.19%	160,907/1.17%	226,078/1.61%
2012	150,205/1.30%	141,633/1.29%	187,850/1.34%	252,319/1.54%	272,632/1.82%

* 제주도는 2010년 42,472/1.8%, 2011년 33,149/1.4%, 2012년 72,993/2.13%임.

* 각 자치단체의 체육예산과 전체 예산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광역도에 비해서는 광역시의 체육예산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의 체육예산 비중이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관련 재정력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전체예산에 있어 체육예산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체육예산 지출이 여전히 지방비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적으로 기금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비의 비중은 74.1%에서 71.5%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금의 의존도는 15.0%에서 18.6%의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다.

IV. 소속기관차원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력분석

1. 소속 체육행정조직의 기능분석

우리나라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 소속기관의 종류와 수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있어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정확하게 체육분야는 관련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항순(2013)이 지적한바와 같이 역사나 기능, 재정규모측면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체육계에서의 조직은 다른 형태의 공식조직과는 달리 구조적 특성, 즉 관료주의, 기록성, 구조적 안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수한 측면은 다른 조직과의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안문용 외, 2013: 100).

대한체육회는 1920년 7월 창립되어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기초하여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육성,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협력 및 올림픽 운동 확산, 올림픽 등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으로 국민사기진작,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양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대회 개최, 학교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체육회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창설되었으며 일제시대에 해산되는 경험을 겪기도 했지만 해방과 더불어 부활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김주훈 외, 2001: 379).

대한체육회 이외에 1991년 2월 주요 체육행정조직으로 설치된 것이 국민생활체육회이다. 설치배경에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와 자동화시대 도래로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주훈 외, 2001: 380). 이에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미 세계 각 국가에서 생활체육(Sports for all)을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체육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나 민간단체의 체육조직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채재성, 2003: 646).

국민생활체육회에 이어 분석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년 4월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는 국민체육진흥과 기금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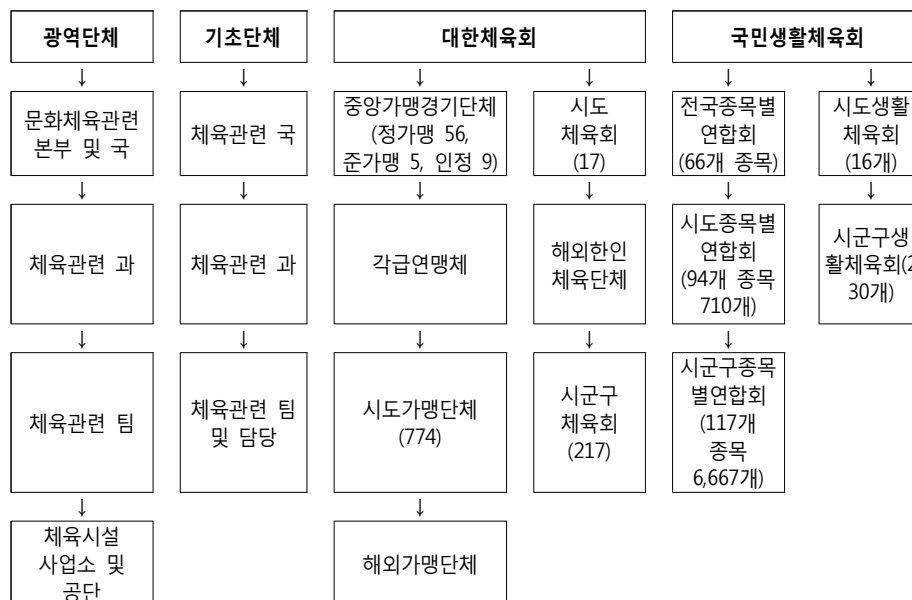
결국, 대한체육회는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http://www.sports.or.kr/koc.sport>) 국민생활체육회는 범국민 체육생활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http://www.sportal.or.kr/>). 이 밖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복지사회 구현과 체육재정을 책임지고 있다(<http://www.kspo.or.kr>).

대한체육회는 오랜 동안 중요한 체육행정조직의 기능수행을 통해 엘리트체육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경제력 수준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경기력을 갖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엘리트체육은 지나친 국가간의 경쟁으로 스포츠본연의 목적과 순수성을 잃게 되었고 그 가치도 퇴색되었다라는 지적이 있다. 채재성(2003: 645)에 의하면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스포츠의 전부라면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의미 있는 존재이고 대중의 참여는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와의 사업 유사성과 이로 인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을 둘러싼 갈등과 사업의 중복성 부분인데, 후자의 경우 전국체전과 생활체육체전이 매년 개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를 우리나라로 초청하는 세계한민족축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관광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여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227).

또한, 대한체육회는 중앙가맹경기단체로 정가맹 56개, 준가맹 5개, 인정 9개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종목별연합회 66개가 가입되어 있다. 동시에 지방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체육행정조직 이외에 두 단체의 체육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체육행정조직의 다변화는 전문화의 원리에 충실하고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재정의 중복성이라는 측면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지자체의 체육조직과 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지부비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체육백서 2012를 참고로 작성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재정의 확충에 일조하고 있으나 일부 재원의 운용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륜·경정·투표권사업의 수익금을 기금회계로 전입시켰으나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이자수입을 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단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액이 공단자체의 수입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회계운용 방식과는 맞지 않으며 기금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1: 75-76). 또한, 2013년 기준으로 경영평가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준정부기관 87개 중에서 D등급에 해당되는 하위 30개 기관에 포함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4: 22). 이는 2012년 기준 83개 기관중에서 B등급에 해당되어 상위 56개 기관에 위치해 있던 것과 비교된다(기획재정부, 2013: 19).

위와 같은 성과와 문제점 이외에 우리나라의 체육행정조직의 종사자들은 부서간 협력관계에 있어 조직별로 차이는 있으나 부서간 정보제공은 잘되고 있지만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비협조적, 의사소통 곤란, 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한 문제해결 지연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학래·김현석, 1999: 820).

2. 소속 체육행정조직의 재정력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위치해 있는 체육행정조직의 수입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정단체기관에 속해있지만 체육업무와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입원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반면에 대한체육회는 민법상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와 수입원에 있어 유사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모금과 집행으로 인해 수입원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일차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입은 국고, 기금, 공익사업적립금,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은 일반관리, 경륜, 경정, 투표권, 국고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체육진흥기금과 국고의 비중이 높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중앙정부의 국고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고 투표권 수입과 경륜장 운영을 통한 경륜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대한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상환금 등을 포함해 전체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인회계와 관련하여 자체시설관리비 및 기타 사업 운영경비, 타 기관 배분금, 공단전출금 등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 예산규모가 1,54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고 41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874억원, 공익사업적립금 77억원이고 재정력과 관련되고 있는 자체수입은 17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체수입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1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연도별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체수입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게 되면 자체일반회계와 자체특별회계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는데, 총 175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5〉 대한체육회의 재정력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	국고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자체수입(a)	총계(b)	재정력수준 (a/b)x100
2010	35,604	82,801	9,256	13,417	141,078	9.5%
2011	36,105	128,912	7,613	16,031	188,661	8.5%
2012	41,211	87,489	7,781	17,539	154,020	11.4%

2012년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체육회는 총 예산규모가 352억원으로 이 중에서 국고 1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25억원, 자체수입은 2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력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체수입의 비중은 전체예산의 7.8%로 최근 3년간은 8%내외에 그치고 있다. 자체수입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게 되면 총 25억원으로 기타 사업수입이나 부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표 6〉 국민생활체육회의 재정력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	국고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자체수입(a)	총계(b)	재정력수준 (a/b)X100
2010	-	23,661	-	2,141	25,802	8.3%
2011	-	24,986	-	2,296	27,282	8.4%
2012	100	32,527	-	2,539	35,209	7.8%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총 예산규모가 1조 4,22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정수입과 관련해서는 본부수입이 1,086억원, 경륜수입이 3,024억원, 경쟁수입이 969억원, 투표권수입이 9,004억원, 국고가 142억원이다. 그러므로 전체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이 99%에 이르고 있어 재정력, 다시 말해 재원 조달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정력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	본부(a1)	경륜(a2)	경쟁(a3)	투표권(a4)
2010	112,468	289,615	93,057	748,674
2011	109,278	285,219	94,085	732,166
2012	108,680	302,422	96,900	900,456
연도	국고	총계(b)	재정력수준(a1+a2+a3+a4/b)X100	
2010	6,647	1,250,461	99.5%	
2011	7,020	1,227,768	99.4%	
2012	14,261	1,422,723	99.0%	

결국, 소속기관형태의 체육행정조직의 재정력을 분석하게 되면 지나친 체육재정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자체수입은 매우 열악한 측면이 강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우 높은 측면을 보이고 있다.

V. 종합분석

우리나라에 있어 각 정부마다 체육행정의 기능과 정책의 초점은 크게 또는 작게 변화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⁵⁾ 이처럼 시대변

5) 최근, 박근혜정부에서도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꾼다라는 비전하에 생활체육참여율 향상, 세계 상위경기력, 국제스포츠계 입지강화, 스포츠산업관련 규모확대와 일자리 강화를 정책으로는 추진하고 있다(<http://www.mcst.go.kr>). 특히,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장애인시설 파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향상 지원한다.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의 스포츠교류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체육분야 ODA사업을 추진한다는

화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차원, 지자체차원 그리고 소속기관 형태로 체육행정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결국, 각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지방의 위상강화, 체육의 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체육관련 중앙부처의 형태는 다른 국가의 사례나 그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 더 이상 단독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국가의 다른 기능과의 연계하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차원에서 주민의 체육과 건강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연계하에 관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도 중앙부처의 조직구조와 유사하게 문화체육국(과) 산하에 여러 개의 과(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차원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간의 생활체육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정법인화의 문제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원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우리나라 체육행정조직간에 생활체육 역할수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학자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학교생활체육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을 전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조직간의 생활체육에 대한 의견교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하의 구조적 이중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가맹단체의 유사성 문제,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의 존재와 생활체육회의 존재이다.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전국체전과 전국생활인체육대회가 시기를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를 두어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재정적 낭비요인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기초단체는 부산 영도구,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하여 총 48곳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29).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재정력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중이 매우 낮아 자체적인 운영에 있어 과도하게 국고금이나 체육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해도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아 독자적인 기능수행이나 사업구상에 있어 제약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여러 사업으로 인해 체육재원의 독점을 향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분야와 비교해도 재원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또한, 오랜 동안 체육관련 콘텐츠개발과 이로 인해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슬로건으로 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국제경기력의 수준에 비추어 스포츠산업계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 및 재원의 투자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표 8〉 체육행정조직의 구조적 및 재정적 문제점 분석

구분	구조적 측면	재정적 측면
내용	- 생활체육의 업무의 중복성, 가맹단체의 유사성, 체육대회의 중복성, 지방차원의 체육관련 조직의 이원화, 스포츠콘텐츠 및 스포츠산업의 성과미흡	- 양 체육회의 자체수입 부족,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원 집중성, 재정지원의 중복성 및 낭비성, 스포츠콘텐츠 및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족

Ⅵ. 결 론

우리나라에 있어 체육행정조직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수직적 관계하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기력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열기를 고취시켜 오고 있다. 동시에 체육기금을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는 체육진흥과 체육관련 시설의 확충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 성과에 비해 미시적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차원의 체육행정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와 유사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나 체육관련 예산은 복지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지방차원도 유사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체육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체육재정 규모

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스포츠콘텐츠와 스포츠산업의 육성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자의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 기능을 둘러싼 갈등, 사업의 중복성 문제와 이로 인해 재정의 중복투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 생활체육을 담당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또는 선진해외 경험을 보더라도 체육클럽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체육저변 확대와 이러한 성과를 엘리트체육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기능 및 조직의 개편이 요구된다.

셋째, 시·도 및 시·군·구하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장애인체육회까지 설치되어 삼중구조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각자의 특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인력 및 재정의 중복성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적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부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통합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 및 지자체차원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차원하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제외하고는 재정력의 수준이 10% 내외로 지나친 국고보조금 및 체육기금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체육행정조직에 적합하고 독자적인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각 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체육진흥기금의 일부수입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적으로 체육인의 복지향상과 대외적으로 국제체육인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 재정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체육행정과 관련된 재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체육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항을 배치하고 전시성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재정절약을 통해 국제행정인 양성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용. (2007). 지방체육행정조직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18(3): 495-505.
- 구창모. (2007). 한국체육행정 조직체계 모형개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5(6): 85-95.
- 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2연도 결산부처별분석 III」.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 기획재정부. (2013).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기획재정부. (2014).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김성길. (2012). 「스포츠콘텐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용섭. (2010).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1호: 59-83.
- 김정하. (2000). 스포츠 행정조직의 권력행태와 조직구조, 조직문화 및 조직 유효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3: 669-685.
- 김주훈 외. (2001). 한국 체육행정조직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2(3): 375-390.
- 김지욱. (2012).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달능력 및 재정력 격차 수렴성 연구. *서울도시연구*, 13(3): 1-14.
- 김택·유종해. (2011). 「행정조직론」.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노희덕. (2013). 「세계체육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체육백서 2012」.
- 안문용 외. (2013). 「스포츠 정보론」. 서울: 시간의물레.
- 윤광재·황성수. (2011). 한국행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행정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29-50.
- 이범제. (1999). 「체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용식. (1998). 한국 체육조직의 조직간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4): 605-615.
- 이상범. (201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군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상효. (2010). 「체육행정·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학래·김현식. (1999). 체육행정조직의 조직행태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4): 811-823.
- 이현정. (2004). 「체육행정학」. 서울: 대경북스.
- 정홍익 외. (2008). 「문화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조현영·정남주. (2005). 「현대사회와 스포츠」. 광주: 호남대학교출판부.
- 채재성. (2003).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운영을 위한 조직구조 및 기능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643-654.
- 최향순. (2013). 「신행정조직론」. 서울: 대명문화사.
- Bloyce, Daniel & Smith, Andy. (2010). Sport Policy and Development. N.Y.: Routledge.
- Denhardt, Robert B. (2011).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MA: Wadsworth.
- Doll, Herald & Söderman, Sten. (2011). Sport as a Business. N.Y.: Palgrave Macmillan.
- Forster, John & Pope, Nigel K.LI. (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Sporting Organizations. N.Y.: Routledge.
- Houlihan, Barrie & White, Anita. (2002). The Politics of Sports Development. N.Y.: Routledge.
- Johnson, Arthur T. & James H. Frey. (1985). Government and Sport: The Public Policy Issues. New Jersey: Rowman & Allanheld.
- Jones, Gareth R. (2010). Organizational Theory, Design, and Change. New Jersey: Prentice Hill.
- OECD. (2013). OECD Factbook. Paris: OECD.
- Verhoest, Koen et al.. (2012). Government agencies: practices and lessons from 30 countries. N.Y.: Palgrave Macmillan.
- <http://www.kspo.or.kr>
- <http://www.mcst.go.kr>
- <http://www.sportal.or.kr/>
- <http://www.sports.or.kr/koc.sport>